

2021 새해 새 설계

구충곤 화순군수

위기 속 빛나는 명품 화순 실현...첨단의료·농업 박차



"신속한 새해는 명품화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5일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올해도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새해에는 군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마스크 대신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코로나19 사태와 침체한 지역경제 등 위기 속에도 더욱 빛나는 화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명품 화순을 실현할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첨단 스마트 미래농업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부자 농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소득 작목을 개발·보급하고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최첨단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까지 화순 고유의 맞춤형 먹거리 전략을 추진하고 내수면 양식 단지, 수산 식품 거점 단지 등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

백신사업 확대...의료·힐링관광 노인·장애인 '포용복지' 구현 비대면 관광 브랜드 구축 총력
 구 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대응체계와 촘촘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의 위협에 대처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순의 특화 산업인 첨단의료·백신 등 사업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유치해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를 조성해 백신·바이오·생물·의약 분야 유망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을 하면서 돌봄센터 등을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관광 산업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관광객 500만

2021년 주요 사업
 ▲소득 작목 개발·'스마트팜' 단지 조성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추진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의료연계형 치유의 숲'
 ▲지역·정유성 관광 자원화
 ▲'국화 향연'축제 온·오프 융합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여성과 고령까지 3대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리거나 100원 택시, 1천원 버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까지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또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을 하면서 돌봄센터 등을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관광 산업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 군수는 "새로운 관광 화순 캐릭터를 개발하고 비대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화순만의 색깔 있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순 적벽'과 '세계 거석 테마파크' '정유성, 주자묘' 등을 새롭게 관광 자원화해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의료연계형 치유의 숲'을 조성해 의료·힐링 관광에도 앞장선다. 이미 전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순 국화향연은 관광 트렌드에 맞춰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로 전환한다.
 구 군수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들이 화순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단없는 미래 화순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김보미 강진균의원 '나눔 실천' 의정활동비 등 260만원 기탁

김보미(사진 오른쪽) 강진균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등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달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6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김 위원장의 12월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에도 12월 의정활동비를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부문화 확산으로 강진균이 더욱 행복해지고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공직자 본분·초심 잃지 않기를"
 유두석 장성군수 '조선시대 교지 본뜬 임명장' 수여

유두석 장성군수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본분과 초심을 강조한 조선시대 임금의 교지(敎旨)를 본뜬 임명장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군수는 지난 4일 1일자로 승진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3명 등 총 4명의 승진 간부들에게 교지 형태의 임용장을 수여했다.
 교지는 조선시대에 임금이 문무관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사령장이다.
 장성군이 수여한 임용장은 종이를 천에 붙인 두루마리 형태에 내용은 붓글씨로 작성했다.
 유 군수는 "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관리자로서 높은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지 임용장을 마련했다"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군은 이번 임용장 수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사무관 이상 승진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임용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김동연 전 부총리 '유쾌한 반란' 내일 장성아카데미 초청 강연

군, 유튜브 채널 실시간 중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사진) '유쾌한반란' 이사장이 21세기장성아카데미 강단에 선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가 7일 오후 4시30분부터 열리는 제1122회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강사로 초빙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현장 강연에는 제한된 정중만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유튜브 채널에서는 누구나 강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 김 전 부총리는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 표현인 '반란'을 주제로 타인, 자신, 사회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을 세워 계층 이동, 혁신 성장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저서로는 '있는 자리 흔들리기' 등이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2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초빙됐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강연이 1년 가까이 연기됐다.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를 기치로 1995년 9월 15일 첫 강좌를 열었다. 그동안 김홍식 전 국무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임권택 영화감독, 조정래 작가, 한비야 월 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료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 각계 인사 강연을 이어왔다.
 지난 2019년에는 유럽연합 오피셜월드레코드(EU OWR)로부터 '세계 최장기간 운영된 정기적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다.
 장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2월 강연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 시범강연을 재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 격상되면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